

糖尿病, 인슐린受容体부족이큰원인

慶熙大 의과대학 内科팀 입증

체장의 인슐린생성기능 저하가 그 유일한 병인이라고 생각돼오던 성인형 당뇨병의 발병원인이 이 외에도 각종 체세포에서의 인슐린수용체생성기능저하가 큰 원인이 되고있다는 사실이 국내 의학계에 의해 증명되었다.

경희대의대내비연구팀은 인체에서 얻을수 있는 적혈구세포를 비롯, 단핵구세포 T림파구세포, 지방세포, 섬유아세포등각종 세포에 있어서의 인슐린세포막 수용체 수요를 정상인및성인형당뇨병환자로부터 추출, 비교하여 이같은 病因論을 확인했다.

이 결과 공복시의 혈당치는 정상대조군이 평균 $81 \pm 16 \text{mg} \%$ 인데 비해 성인형당뇨환자군은 평균 $2 \text{백} 47 \pm 9 \cdot 3 \text{mg} \%$ 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인슐린평균농도는 오히려 대조군의 $15 \pm 2 \cdot 3 \text{ / ml}$ 보다 조금높은 $25 \pm 21 \cdot 8 \text{ / ml}$ 로 나타났다.

적혈구세포의 경우 인슐린결합율은 대조군의 $10 \cdot 1 \pm 2 \cdot 7 \%$ 에 비해 성인형당뇨병환자는 $6 \cdot 9 \pm 1 \cdot 1 \%$ 로 낮게 나타났고또 적혈구세포의 세포막수용체수치는 단위세포당 정상군이 1천 4백 $25 \pm 1 \text{ 백} 85$ 개 환자군이 8백 $68 \pm 3 \text{ 백} 8$ 개로 거의 절반수준, 소아성당뇨병환자에서는 1천 5백 4개, 인슐린분비장애에서는 1천 2백 10개, 의인성쿠싱증후군에서는 1천개로 정상수준이었으며 만성제장염에 속발된 당뇨병에서는 5천 9백 22개로 현저히 증가된 현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특히 T림파구세포의 자극물질(PHA)로 자극한수용체 존재여부검사에서 환자군의 경우 세포막수용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同팀은 이같은 결과로 미루어 지금까지의 체장기능에 의한 병인론이외에, 수용체수부족에 의한 원인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혈당치의 고저와는 관계없이 인슐린을 부여해오던 기존치료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아직은 가설에 불과하지만 이 병의유전성이 더욱 유력해졌다고 풀이했다.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는각 세포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성하기 위해 인슐린을 흡수하는 친구역할을 하기때문에 이 기능이 부진할 경우 血中인슐린치는 높아지게 마련이므로 혈당치가 높다고 인슐린을 투여할 경우, 인슐린면역성이 더커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인슐린요법을시행할때, 수용체의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동원돼야만 부작용을 없앨수 있다고 한다.

마늘과 抗癌作用

유효成分 많을수록좋아

마늘은 단군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우리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양념뿐만 아니라 민간약으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양의 옛 기록을 살펴 보아도 각종 질병의 치료제로서 마늘이 재배되고 이용되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藥草로서의 마늘의 역사는 이같이 유구하지만, 마늘의 약효에 관해서 현대과학적 방법으로는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수행된것은 30여년에 지나지 않는다. 마늘에 대한 연구는 동맥경화·고혈압 등 순환기계질환에 대한 抗癌作用과 抗生作用, 그리고 抗癌作用 등 세 가지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마늘을 많이 먹는 나라에는 암 발생률이 비교적 낮다는 통계도 나와 있거니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마늘의 암 억제작용은 결국 마늘의 기인인 마늘유리글리코사이드의 세포분열 억제효과에 기인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듯하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마늘의 약효는유항성분 함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항성분 함량이 많을수록 항암효과가 좋다는 것이다. 문제는이 유항성분이 마늘의 불쾌한냄새와도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항성분은 증가하

면서도 불쾌한 냄새는 나지않는 마늘종자의 개량을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늘의 성분을 자세히 분석해 볼 때 이 연구의 전망은 밝은듯하다.

오징어 껍질이

惡性肉腫에 효과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양인들에게 오징어는 순전히 食用으로만 생각되었던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징어가 악성肉腫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설탕 과다 섭취하면

乳癌에 걸릴 위험 많다

설탕을 과다섭취하면 유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새로운학설이 나왔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시리 박사와 에파폴연구소의 호르빈 박사는 OECD가맹 20개국을 대상으로 유암사망률과 설탕소비량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乳癌의 發症을 촉진하고 있다고한다.

疫學的인 조사결과 乳癌은호르몬 依存性이 강한 질환으로 유암세포를 배양할 경우 여성 호르몬을 더하지 않으면 증식은 일시적으로 억제되나 그것은 순간에 불과하며 호르몬의 공급이 중단되도 조만간 암세포는 호르몬非依存性의 세포로 변질되어 암세포가 증식되게시

들의 한 연구에 의하면, 오징어에는 콜린에스테라제(Cholinesterase)라는 효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콜린에스테라제는 생체 내에서 매우 중요한 효소로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순간적으로 분해하는 기능을 갖고있는데, 만일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못할 때는 순간적으로 고통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효소는 동물의 뇌·신경·적혈구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동해산 오징어에서 얻은 콜린에스테라제는 다른 동물의 뇌에서 얻은 효소보다 활성이 10배나강할 뿐만 아니라 질도 월등하다고 한다. 그밖에 오징어에는 포스파타제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음이 판명되었다고하는데, 이 효소는 종양이나 염증 치료에 전망이 밝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전혀 쓸모 없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오징어 껍질이 동물실험에서 악성肉腫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에 접했고 이에 따라 1977년~1979년사이의 유암사망률통계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여내설탕소비량과의 밀접한 관련을 찾아낼 수 있었다.

20개 OECD가맹국에서는 고령여성(65~74)의 유암사망률이 전체적으로 높았으나 이태리, 포르투갈, 유고, 스페인, 일본등 설탕소비량이 적은 나라에서는 극히 낮았다.

이 설탕과 유암과의 관계를 잇는 증거역할은 체내혈당이 상승하면 분비되는 인슐린이 많고 있다.

음식물이 다량으로 체내에 들어오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모든 조직에 글루코스가 공급되는데 음식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에는 글루코스가 공급되지 못한다.

여성의 유암은 남비성기관의 하나이므로 글루코스의 공급단위는 낮다. 그런데 조직배양에 있어 정상적인 乳腺세포는 인슐린을 절대 필요로 한다.

설탕의 명백한 病原效果는 소화가 빠르다는 것에 기인한다. 설탕이 체내에 들어가 글루코스와 과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올리면 잠시동안 인슐린이 과잉분비된다. 인슐린이 과잉분비되면 글루코스공급이 낮은 조직에서는 안락 作用이 나타나게 된다.

「테트로 도톡신」

복어독, 산란기 弱해

사실 복어만큼 맛있는 생선도 흔하지 않지만 중독성이 적지 않았음도 사실이다.

일본인 다하라는 복어알의 독성분을 추출하여 이것을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복어의 난소·간·피부및 소화관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계절에 따라 함량이 변화가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산란기에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한다. 게다가 바다산 조개, 中美産 구리피부등에서도 발견된다는데 이상하게도 인공사육복어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긴장은 心臟病을 유발시킨다

6·25통탄때 전사한 미군병사의 심장을 조사해본 결과 20대 후반에 이미 심장에 지방이 고여 노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연구조사가 있다. 이것은 미네소타대학 생리위생학교실의 키스교수가 조사해본 것인데 노화와 심장병에 대한다른 통계도 있다.

미네소타철도회사의 통계에따르면 保險者 肉體 弱음을 하는 사람보다 사무직 직원들이 심장병에 걸리기 쉽다고 한다. 그들의 콜레스테롤치는 공복에

거티였는데 현장과 사무실의 2組를 비교해본 결과 콜레스테롤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다

만 맥박수에 있어서 사무직원들이 결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긴장에 있었다. 긴장이 심장병이나 고혈압의 범인이라는 것은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아이젠하워대통령이재임중에 주치의로 활약한 화이트 박사도 이에 대해서 연구

휴식과 安定주는 유일한 方法은 명상

한 것이었다. 그는 보스턴마라톤때 출발점에 서있는 선수들의 맥박을 잰다. 1백8이었는데 그것이 결승점에 들어왔을 때는 1백8로 내려가 있었다. 42km의 거리를 긴장해서 달린 결과 맥박수에 차이가 생긴것

이다. 아무튼 운동으로 흘러가는혈액이 긴장때문에 남아있으면(산성화하면)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간장병등 성인병이 유발되게 마련이다. 24시간 운명이라는 과몰에 시달리고있는 심장에 휴식과 안정을 주지않으면 안된다.

아마 이를위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수있는 방법은 긴장을 잠시동안 원전 이완시키는 「명상」밖에 없다. 긴장은심장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만큼 「장간 휴식」을 잊어서는안된다.

드디어 중동으로 수출되는 건강식품!

매실 컴프리

매실의 각종 유기산·비타민·미네랄과 기적의 식물 컴프리의 유효성분이 콤비가 되어 있는 천연의 건강식품으로 공해·피로·노화·성인병을 이겨냅니다.

1983. 11. 25일자 성인병예방협회보 6면 기사 참조



COMFREY

180개 까지 절고 이물 없게

Shippers: Mohammed Thafar For Dahmany, Saudi Arabia

Commodity & Descriptions: "MAREIL COMFREY" (매실 컴프리)

SHIPMENT (선적) Within three months after date of shipment from port of loading to Haman port, Saudi Arabia. Export standard pack. By air freight.

대리점 및 특약점

제조원 영동식

전화: 590-1146·532-322